

# 서울시, 청년 주거안정 팔 걷어... “공급·지원·안전망 강화”

### 청년주택 2만5000호 추가 발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 시범 도입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호를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함께 묶어 청년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한다. 서울형 새싹원룸, 공유주택, 디딤돌 청년주택, 청년특화단지,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주택,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도 도입해 청년 주거 공급 사다리를 잇는다.

대학가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대학 신입생을 위해 대학가 인근 원룸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1층 서울 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주거 상담 페어에 참석해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자로 지원하고 SH 등이 반전세 방식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뒤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대학가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1만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도 공급한다. 디딤돌 청년주택 2000호, 청년특화단지 1000호, 청년성장주택 600호, 자립준비청년주택

100호 등 총 3700호를 공급해 사회 진입 초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 ‘바로내집’도 도입한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

다.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지원 수혜 대상은 넓힌다.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미선정 청년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 원을 새로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합산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대상을 기존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인원을 기존 1만3000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 지원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율을 5%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시는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5곳 추가 지정

### 지역 특성 반영한 학습모델 구축 “양적 확산을 넘어 질적 혁신 도약”

기존 평생학습도시 9곳이 인공지능(AI)·디지털 학습, 세대 간 교류, 중장년 인재양성 등에 특화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육성되고, 신규 평생학습도시 5곳도 추가 지정됐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체계를 넓히고 정책 무게중심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혁신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0일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201곳 가운데 9곳을 지역 특성을 살린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지원한다. 선정된 도시는 AI·디지털 학습, 지역 산업 참여, 세대 간 교류, 중장년 인재양성 등 지역 현안과 시대 변화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신규 평생학습도시도 5곳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전국 평생학습도시는 총 206곳으로 늘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91.2%에 해당한다. 지난해 201곳, 88.9%에서 확대된 수치다.

광역 단위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 여러 평생학습도시가 연계하는 광역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

해 올해 5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AI·디지털, 고령화, 지역 현안 등에 특화된 평생학습 연합체를 구성해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이끌게 된다.

교육부는 ‘2026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특성화 평생학습도시에는 각 3000만원 안팎, 광역형에는 각 5000만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춰 100% 이상의 지방비를 대응 투자한다.

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2026년은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양적 확산을 넘어 질적 혁신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라며 “지역 평생학습이 AI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이 함께 협력해 지역 주민과 사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

### 서울시복지재단 소득기반 붕괴 등 영향 평균 채무액 2.9억... 60대 이상 3.9억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1인 가구, 무직 비중도 높아 고령층의 소득 기반 붕괴와 생활고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이하 센터)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1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로 중장년 이후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2023년 63.5%, 2024년 68.4%에 이어 늘었다. 가족의 도움 없이 고립된 채 혼자 부채를 감당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일자리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일용·단기직으로 신청자 대부분이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작은 경제 충격에도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신청자의 평균 총채무액은 2억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평균 3억 9400만원으로, 고령층일수록 보유 채무 장기화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인해 총채무액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현진 기자

## 남양주시, 경마장 유치 행보... “미래형 관광허브 조성”

### 뛰어난 교통망·신도시 인프라 강점

남양주시는 정부의 ‘과천경마장’이 이전하기로 하자, 뛰어난 교통망과 신도시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워 경마장 유치 행보에 나섰다.

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균형 발전과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경마장 유치를 공

식화하고, ‘미래형 관광허브’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유치 추진의 가장 큰 경쟁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E·F 노선과 지하철 4·8·9호선 연장 등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추진 중이며,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신설과 수도권순환고속도

로,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관통해 수도권 전역에서 접근성이 우수한 요충지로 평가된다.

특히 왕숙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풍부한 배후 수요와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시는 안정적인 방문객 확보와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3월 11일 (수) 음력 : 1월 23일

수도권 날씨 0 ~ 8 °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3/9, 동두천 -2/8, 가평 -3/9, 파주 -3/8, 서울 0/8, 양평 -2/10, 인천 0/6, 수원 0/8, 용인 0/8, 평택 -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美 정보기관 “군사개입으로 이란 정권교체 어려워”...공습 직전 보고서 /사진 뉴시스

▲ 1~2월 중국 수출 21.8% ↑ 수입 19.8% ↑ ...무역총액 21% ↑

▲ 미국 ‘301조’ 조사 가능성 확산...통상당국 “개시해도 협상 여지 있어”

▲ 노벨상 경제학자 “AI, 인간 노동 대규모 대체 어려워...거품 꺼지면 경제 충격”

▲ 美, 이란 공격 첫 이틀 8조 2000억원 탄약·무기 소모

▲ “성범죄자 파일 뭉갠다” 트럼프 지지도 47% → 44%...부정은 54% 달해